CALS newsletter No. 18 2011. 12. 5. | College of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 newsletter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발행인 : 이학래, 편집인 : 최진용
편집 : 대외협력 · 홍보위원회
(김진모 · 배정한 · 서학수 · 양태진 · 이중용 · 김희발 · Hong Sok(Brian) Kim)

이형주 교수, 제19회 상록연구대상 수상

학술상 - 이상기 교수 교육상 - 김기선 교수

왼쪽부터 이상기교수, 이형주 교수, 오연천 총장, 김기선 교수, 이학래 학장

■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육연구재단과 농업생명과학대학이 시상하는 제19회 상록농업생명과학연구대상과 제11회 학술상, 제9회 교육상 시상식이 11월 28일 호암교수회관에서 개최됐다. 농생명공학부 이형주 교수가 상록농업생명과학연구대상을, 농생명공학부 이상기 교수가 학술상을, 식물생산과학부 김기선 교수가 교육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에는 오연천 서울대 총장, 시상 기금 출연자인 한인규 명예교수, 정윤환 농생대 동창회장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형주 교수는 기능성식품학을 주로 연구 해 왔으며 전통적인 식품공학에 학문을 융합하여 다양한 식품성분이 만성질환 예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제시한 공로가 높이 평가되어 상록농업생명과학연구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학술상을 수상한 이상기 교수는 생화학, 구조생물학 등 생화학에 관련된 연구를 통하여 구조생물학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 성과를, 교육상을 수상한 김기선 교수는 학생지도에 있어서 현장견학과 팀 프로젝트 병행을 통해 이론과 함께 현장 교육에 힘쓰는 등의 교육활동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상록농업생명과학연구대상은 한인규 명예교수가 1991년 출연한 기금을 기초로 지난 1992년부터 농업생명과학 및 대학 발전에 공헌한 교수에게 수여되고 있으며, 학술상과 교육상은 1998년 제정되어 연구논문 및 저술 업적이 탁월한 교수와 후진 양성 및 교육 활동에서 뛰어난 교수에게 시상되고 있다.

"샌드페블즈" 전설을 노래하다

■ 농생대 그룹사운드 샌드페블즈의 팀 창립 40주년 기념콘서트가 지난 11월 12일 서울대학교 문화관대강당에서 열렸다. 공연이 시작할 무렵엔 문화관 대강당의 1층은 물론 2층까지 전석이 꽉 찼으며 뒤에서 서서보는 사람이 있을 만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다. 이 날 무대에선 헤비메탈 장르인 AC/DC의 Back In Black으로 오프닝 서막을 열었다. 특히, 1대 기타리스트 김동만 씨 자제이자 유명밴드 "톡식"의 멤버 김정우 씨는 '역시 피는 못 속인다는' 사실을 여실히 증명 했으며, 산울림 김창완과 김창훈(샌드페블즈5대)이 초대 손님으로 참여하여 공연을 뜨겁게 달구었다. 전체 앵콜곡으로는 샌드페블즈 1대부터 39대까지 모든 멤버가 무대에 올라, 모두가 세월을 뛰어넘어 한 목소리로 "나 어떡해"를 열창하며 감동의 피날레를 장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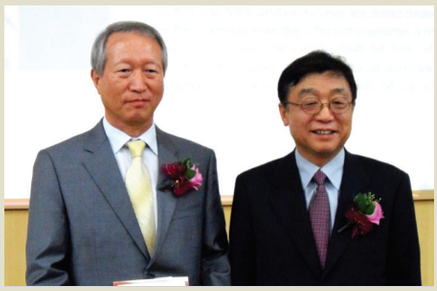
〈주요내용〉

2면 _ 명예교수 간담회
2면 _ 이형주 교수 학술연구상 수상
3면 _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기업유치 박차
4~5면 _ 농생대 인사이드
6면 _ 동문탐방

농생대 명예교수 초청 오찬 간담회 열려

■ 명예 교수와 현직교수의 만남의 시간인 '명예교수 간담회'가 지난 9월28일 호암교수회관에서 오찬을 겸하여 있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약 5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집행부를 비롯한 현직 교수들이 함께 했다. 오랜 만에 모교를 방문한 교수들은 학부 소속에 따라 테이블에 모여 앉아 담화를 나누며 화기애애하게 진행 되었다. 간담회가 시작되면서, 인사말을 통해 이학래 학장은 "오랫동안 학교발전을 위해 애쓰신 여러 선생님들을 한자리에 모시고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었다."면서 농생대의 향후계획에 대해 알리고 평창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가 마무리 단계에 있음을 언급하였다. 명예교수 초청 간담회는 앞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 명예교수들에게 학교의 발전상을 설명하고 명예교수들로부터 학교발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농생명공학부 이형주 교수, 2011학년도 서울대학교 학술연구상 수상



■ 서울대학교는 교육에 남다른 열정과 창의적인 강의로 교육 수준을 향상 시키는데 기여한 '2011학년도 서울대학교 교육상수상자'와 2011학년도 서울대학교 학술연구상 수상자를 선정 하였으며 11월 3일 시상식을 거행 하였다. 우리대학에서는 농생명공학부 이형주 교수가 '2011학년도 학술연구상' 수상자로 선정 되었다. 이형주 교수는 전통적인 식품공학기술에 화학유전체학, 컴퓨터생물학, 구조생물학, 분자세포생물학, 형질전환동물생리학 등을 결합하여 여러 식품성분이 특정 질병과 관련된 세포내 신호전달 경로와 목표 유전자 또는 단백질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또한 표적 단백질간의 구조 활성간의 상관성을 분석함으로써 다양한 식품성분이 만성질환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김유용 교수, '제12회 한국양돈대상'

■ 김유용 교수는 양동산업의 현장 연구를 통한 사료비 절감, 모돈관리 방법 개선 등 다양한 생산성 제고 성과를 거두었으며, FMD 순직 공무원 위로성금 기부 및 음성장학회 장학기금 기부 등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통해 양돈산업의 위상제고와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이 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제8회 대한민국조경대전 1, 2위 수상차지

■ 9월 7일 막을 내린 제8회 대한민국 환경조경대전에서 서울대학교 조경학과 학생들이 대상(1위)과 최우수상(2위)을 차지하였다. '그린 인프라(Green infra)', '그린시티(Green city)'라는 주제로, 대상은 학부생 신지선(08), 안데레사(09)학생과 대학원생 최재혁(학부03), 원종호(학부04)가, 최우수상은 학부생 노지현(04), 김경렬(07)학생과 대학원생 장혁준(학부06)학생이 차지 하였다.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기업유치 박차

서울대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와 이지바이오그룹이 연계하여 친환경 동물복지형 가금전문회사를 설립하게 되었다. 서울대와 이지바이오그룹은 지난 9월 9일 오연천 서울대 총장과 이지바이오그룹 지원철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산학협력 계약을 체결했다. 이지바이오그룹의 가족사인 (주)마니커와 서울대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가 각각 출자해 설립되는 이 회사는 앞으로 서울대의 연구개발 성과를 제품화한 친환경 안전 계육 · 계란의 생산을 시작으로 오리고기 및 가공품 사업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서울대학교와 오뗄은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와 연계하여 육가공 전문회사를 설립한다. 지난 11월 16일, 오연천 서울대 총장, 오뗄회장(김연태 동문 축산,71), 이학래 학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육가공 전문회사 설립을 위한 산학협력 계약을 체결했다. ㈜오뗄과 서울대 기술지주회사가 각각 출자하여 설립되는 이 회사는 서울대학교의 연구 개발된 기술 및 특허를 활용한 햄, 소시지를 시작으로 축육냉동식품 및 신선육사업까지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다.

외국인 학생 및 교수 초청행사의 밤

농생대에는 외국인 교수 5명과 외국인 재학생 및 연구원 150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장차 각국에서 활약하며 농생대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갈 이들에게 대학 구성원으로서의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고 서로간의 친목을 다지기 위한 환영 행사가 2011년 11월 29일 교수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100여명의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농생대 소개, 각국의 홍보 영상상영, 외국인 학생공연, 한국홍보 영상, 두레 공연 등 다양한 순서가 이어졌다.

서울대-홋가이도대 14회 공동 심포지엄

서울대 - 홋가이도대가 올해로 14회 심포지움을 개최할 정도로 활발한 교류협력을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11월 18일 농업생명과학대 농생명공학부에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 하였다. "International Symposium on Food Safety"라는 주제로 농생명공학부 하종규, 김유용, 최상호, 유상렬 교수가, 홋가이도대에는 Dr.Kuniyuki Kobayashi, Dr. Tomohiro Mitani, Dr. Kei Sonoyama 교수가 발표에 참여 하였다. 양 대학은 이번 공동심포지엄을 계기로 학술교류 증진은 물론 세계 공동체 발전에 공헌하는 대학으로 도약하는데 한층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일본 동경대 학생교류 협정연장

2011년 10월 4일 농생대는 일본 동경대 농업생명과학대학원과 학생교류협정을 다시 한 번 연장하며 활발한 교류와 국제협력을 이어갈 것을 약속하였다. 두 대학은 지난 2001년과 2006년 두 차례에 걸쳐 이미 양해 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러시아 PSRIA · PSAA와 MOU

2011년 10월 12일 러시아 연해주에 위치한 Primorsky Scientific Research Institute of Agriculture of Russian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s (PSRIA)및 Primorskaya State Agricultural Academy(PSAA)와 학술교류협정을 맺으며, 연구 및 교육에 대한 활발한 협력을 약속하였다.

국가농림기상센터, 이학래 이사장 취임

■ 재단법인 국가농림센터 2대 이사장에 이학래 학장이 11월 9일 취임했다. 박은우 교수(농생명공학부), 이변우 교수(식물생산과학부)가 신임 이사로 선임됐으며 설동근 변호사(법무법인 광장)가 신임 감사로 선임되어 이사회를 꾸린다. 또한 재단 설립 2주년을 맞아 임원진을 새로 선임하여 기획관리부장에 김준 교수(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계측감시부장 김현석 교수(산림과학부), 연구개발부장 김광수 교수(식물생산과학부), 교육훈련부장 강문성 교수(조경지역 · 시스템공학부)가 국가농림기상센터의 2기를 이끌어나간다.

서교 교수, 조경 · 지역시스템공학부 기금교수 부임

■ 서교 교수가 2011년 12월 1일자로 조경 · 지역시스템공학부 지역시스템공학 기금교수로 부임했다. 그린바이오 과학기술 연구원을 겸임하게 되는 서교 교수는 본교에서 학부과정을 이수하고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미국 Dept. of Bioproducts and Biosystems Eng.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했다.

농업생물신소재연구소 심포지엄

11월 16일 국내외 산학연구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생물신소재연구소, 식품안전성 및 독성연구센터, BK21농생명공학사업단이 함께 공동주최로 '2011 Mini Symposium on 『Bridging Innate and Adaptive Immunitiy』'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스웨덴 Gothenburg 대학교의 Jia-Bin Sun 교수, 고려대학교의 정용우 교수, 건양대학교의 박종환 교수, KAIST의 이승효 교수를 초빙하여 선천성/획득성면역에 관여하는 면역세포를 이용한 자가면역질환 예방 및 면역 세포 치료에 관한 최근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국내 연구의 위상을 가늠함과 동시에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 하였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골프장 조성과 녹색경영 국제 심포지엄

10월 18일 서울대학교 조경 · 지역시스템 공학부와 대한골프협회가 공동 주최 하에 '지속 가능한 친환경 골프장 조성과 녹색경영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틀간의 일정이었던 심포지엄에서 세계적인 친환경골프장 인증기관인 GEO(Golf Environment Organisation)의 최고경영자 조나단 스미스 (스코틀랜드 앤드류스 대학교)는 '지속 가능한 골프 리더십'을 주제로, 세계적인 환경 전문가이자 농학박사인 챨스 피코크(노스 캐롤라이나 주립대) 잔디학 교수는 '골프환경 인증제도의 개발'에 대하여 특별 강연을 하였다.

기후변화사업단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산림과학기술에 관한 국제학술대회」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산림과학기술에 관한 국제학술대회(Challenging Climate Change with Forest management and Technologies)가 10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에 걸쳐 기후변화 대응 산림정책 연구개발사업단, 국립산림과학원의 주최로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에는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14개국 30여명의 외국 유명학자, 기업인, 관계 공무원 등 120여명이 모여 36편의 구두발표와 32편의 포스터 발표를 통해 성공적인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이뤄내었다.

작물생명과학전공 견학 및 MT

식물생산과학부 작물생명과학전공에서는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1박 2일의 일정으로 견학 및 MT를 다녀왔다. 전공 교수진과 학부생 및 대학원생 약 70여명이 참가하여 대관령 고령지농업 연구센터, 평창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공사현장에 방문하여 현장 학습했으며, 청태산 자연휴양림에서 1박하며 교수님들과 선후배간의 만남을 통해 평소 궁금했던 것들에 대한 의견교환과 친목을 다지는 기회가 되었다.

국가농림기상센터 2주년 기념 타워기반 육상생태계 온실가스 플럭스 워크숍 개최

재단법인 국가농림기상센터(센터장 박은우 교수)는 설립 2주년 기념하여 제주 난대림연구소에서 "타워기반 육상생태계 온실가스 플럭스 워크숍"(부제: 탄소 · 에너지 · 물 순환 감시 표준화)이 11월 25, 26일에 걸쳐 개최되었다. 이장무 교수(기후변화대응센터 이사장)의 격려사로 시작된 이번 워크숍은 '플럭스 관측'을 주제로 국내 전문가들이 한 자리 모여 전문성을 다지는 시간을 마련했다. 워크숍 중 타워기반 플럭스의 현황과 활용사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플럭스의 표준화 구축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다. 그 밖에 제주 난대림연구소 플럭스 타워 관측지와 고산 기후변화감시소를 방문해 플럭스 관측을 경험했다.

말레이시아 푸트라대UPM(University Putra Malaysia) 조경학과 서울대 견학

10월 4일부터 10월 9일까지 6일 동안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Putra Jaya)에 위치한 푸트라 대학교(UPM, University Putra Malaysia) 조경학과(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Faculty of Design & Architecture) 학생들이 서울을 방문하였다. Dr. Mohd Johari 외 36명의 학생들은 5박 6일의 일정 동안 가이드와 동행하며 경복궁, 창덕궁, 청계천, 남산 등을 답사하며 한국의 전통조경과 공원설계를 살펴보는 학습의 시간을 가졌다.

CALS 농생명산업특강

농생대에서는 자신의 길을 개척하고,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을 거둔 동문의 초청 강연을 통해 재학생들의 미래 진로 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2011년 1학기부터 CALS 농생명산업특강을 개최하고 있다. 9월 7일 (주) 롯데쇼핑 이철우 대표이사(농경제학과 1965 졸업)는 '롯데쇼핑의 글로벌화와 미래비전'을 주제로 이미 레드오션으로 변하고 있는 국내 시장 대신 외국시장으로 진출하는 '글로벌'전략을 취함으로써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한 성공사례에 대해 강연 하였다. 이 대표는 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꾸준히 자기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월13일에 개최된 특강에서는 고희선 농우그룹 회장이 '농업위기, 글로벌 경쟁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농업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6차 전략 산업이다'을 주제로 종자산업을 기간산업의 하나로 보고 완벽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우수한 종자개량과 국가적 차원의 육성책이 필요함을 강조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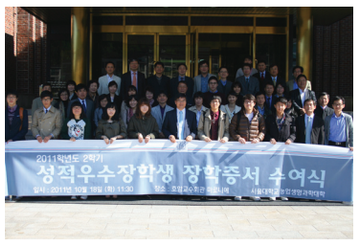
CALS 열정과 지성을 만나다

21회를 맞은「CALS 열정과 지성을 만나다」를 통해 강창희 미래에셋 부회장이 농생대를 찾았다. "INVESTMENT - 대학생을 위한 투자와 금융이야기"를 주제로 9월 28일 특강한 강창희 부회장은 사회인이 되기 전에 필요한 금융지식에 대해 설명하며 장수리스크에 대비하여 건강, 일 그리고 효율적인 자산관리가 중요함을 강조 하였다. 농생대 동문(농경제 66) 이기도 한 강창희부회장은 이날, 농생대 학우들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에 강연을 마쳤다. 또한 10월 26일에는 김미경 아트 스피치 원장의 강연이 있었다. 김원장은 스피치의 구성요소(스피커, 콘텐츠, 청중)를 파악해 청중을 내편으로 만드는 비법에 대해 잘 설명해 주었다. 김미경 원장은 쉴새없이 청중을 참여하게 만들어 현장감 넘치는 강의를 통해 강연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어 내기도 하였다.

2011 CALS 한마당 축구대회

지난 9월 15일 농업생명과학대 한마당축구대회가 열렸다. 이 날 대회에는 총4팀, 81명이 참가하여 교수팀을 비롯한 학생팀, 직원팀. 연구팀으로 나누어 경기를 벌였으며, 학생팀은 우승, 직원팀은 준우승의 기쁨을 누렸다. 이날 참가자들은 승부를 떠나 농생대인들의 단합을 다지고 선의의 경쟁을 벌이는 축구대회를 통해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 또한 이학래 학장이 참석하여 한자리에 모여 진한 축구사랑을 나누고 그 속에서 더 큰 발전과 활력을 얻는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다.

장학증서 수여식



창업지원센터 장학증서 수여식이 9월 30일 수원캠퍼스 창업지원센터에서 열렸다. 이학래 학장과 전창후 창업지원센터장 등이 참석하여 10명의 장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창업지원센터는 2006년부터 꾸준히 장학기금을 기부하여 지금까지 총 90명의 학생이 장학금 지원을 받았다. 또한 10월 18일에는 2011학년도 2학기 성적우수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이 호암교수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성적우수장학생들의 학부모가 함께 참석하여 자녀들을 격려하고 장학금 수혜의 기쁨을 나눴다.

식물분자육종사업단 개소식

■ 농촌진흥청이 지원하는 '차세대바이오그린21' 사업의 「식물분자육종사업단」이 지난 9월 28일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강당에서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고희종 교수(식물생산과학부) 사업단장의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오연천 서울대 총장 환영사 및 민승규 농촌진흥청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농업생명과학에서의 반도체 산업'이라 할 수 있는 '식물분자육종'은 유전체 및 유전자 정보와 첨단 생명공학기술을 개발하고 신품종 육성에 활용하며 종자산업과 농업생명공학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핵심 연구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통일에 대하여 고민하는 차세대가 되어주길

김필주 어그로브서비스 인터내셔널 회장(농학56)

2011년 뉴스위크, "세계를 뒤흔드는 여성 150인"에 뽑힌 김필주 박사(농학56)는 한평생 북한의 식량난 해소와 북한 농민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여생을 바쳐왔다. 작물생리학과 종자학을 연구하며 북한의 농토에 씨를 가져가 뿌리고 가꾸며 농장의 작물 개량과 증산에 심신을 바쳐온 것은 그곳에도 우리 동포 농부들이 살고 있고, 그들도 잘살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였다고 한다.

김필주 동문은 소녀시절 심훈의〈상록수〉 주인공 채영신을 동경 했다고 한다. "1944년 해방되면서 서울로 이주했고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6.25가 일어났어요. 피난길에 농가의 찌든 가난을 목격하고 농부들을 부자가 되게 도와주고 싶다는 결심을 그때 했고 그게 서울대 농과대학 진학으로 이어진 것이지요." 8세 때 해방과 함께 서울로 이주를 하고 북한과 다시 인연이 된 것은 미국의 대표적인 종자회사 파이어니어 하이브레드 인터내셔널사에 근무하며 종자기술 보급업무를 주도 했을 때라고 한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장로교회 원로이사 이승만 목사께서 북한의 종자 보급에 도움을 줄 수 있느냐는 제안을 해왔고 북한의 어려운 실상을 듣게 되었어요. 그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44년만 에 북한 땅을 다시 밟게 된 김필주 동문은 북한에 옥수수 재배, 이모작을 전파했고, 목화재배가 되지 않는 북한에 목화를 심어 현재까지 북한 내 협동농장 5곳을 운영하고 있다.

김필주 동문의 최종 목표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개발사업이라고 한다. 북측 농민이 스스로 자급자족 할 수 있는 모범농촌의 기틀을 만들어 그 여파가 확산됨으로써 북측이 전국적으로 식량위기를 극복하고 평화와 사랑을 나누는 행복한 우리민족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

특히, 김필주 동문은 통일될 나라의 세대가 될 젊은이들에게 "큰 꿈을 가지고 웅지를 펴라는 말부터 하고 싶습니다.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바라보며 통일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고민하기를 바랍니다. 한국은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변신하는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세계에서 유일한 성공적 경제 강국입니다. 지난 22년간 제 경험으로는 북녘동포들도 우리와 같은 우수한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이 뭉치면 또 한번 세계의 중심국가로 기적을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듯이 우리 젊은 세대들이 세계무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믿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은 우리 민족의 역사를 곰곰이 살펴보고 통일에 대하여 고민하는 차세대가 되어 주었으면 합니다." 라는 바람을 내비쳤다.

기술자의 열정으로 일궈낸 공기업의 우먼 파워

김선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디자인 처장(조경80)

전 공사를 통틀어 "최초의 여성 처장"으로 큰 화제를 낳았던 김선미 동문(조경80). 조경학과를 졸업하고 한국토지공사에 입사 한 이래 20여년 만에 여성으로는 첫 1급에 오르는 우먼파워를 보이며 2011년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디자인 처장으로 발탁 되었다.

"저는 여자지만 현장 근무를 더 많이 했습니다. 물론 지금보단 현장 환경 여건이 더 열악했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좋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허허벌판에 공원이 만들어지고, 녹지가 조성되는 모습을 보는 것은 기술자로서 누려볼 수 있는 최고의 뿌듯함이었습니다. 휴일도 없이 근무했지만 하루하루 바뀌어가는 현장 모습에 힘들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첫 '여성 처장'으로 발탁된 김선미 동문은 여성이 아니라 기술자로서의 열정을 강조 했다. "Great Power always comes with Great Responsibility"라는 글귀가 중책을 맡은 입장을 잘 대변해 주는 것 같다. 누구나 능력이 있으면 출신이나 직렬, 성별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능력에 맞는 직위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 이라며 최초의 여성 처장이 됐다는 사실이 여성 후배들에게 큰 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하였다.

현재 주택디자인처에서 아파트 신상품 개발 및 외부 디자인을 맡고 있는 김선미 동문은, 최근 LH 아파트(구, 주공아파트)가 민간아파트에 비해 인기가 떨어지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어 최선을 다해 LH 아파트의 품질과 디자인을 향상시켜 수요자들이 "오래 살고 싶은 아파트를 만드는 것이 회사에서의 단기 목표이고 장기적으로는 건설 분야에서 조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 하는 것." 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선미 동문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주머니 속의 송곳이란 뜻의 '낭중지추(囊中之錐)' 즉, 아무리 감추려 해도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스스로 연마시켜 놓으면 결국 사람들이 알아주게 되니 자신의 목표를 향해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스스로 연마시켜 놓으면 누군가가 결국 알아주더라고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여자이기도 하고 성격이 자신을 홍보하는 활달한 성격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노력하다 보니 주위에서 실력을 인정해주더라고요. 꾸준한 노력이 결국 나를 키워주고 내 브랜드를 만들어 주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선미 동문은 자신을 롤모델로 삼고 있는 여자 후배들에게 "자신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때를 대비해야 한다."며 새로운 기회와 도전이 주어졌을 때 절대 놓치지 말고 꼭 잡아서 멋지게 해보라고 당부했다.

〈매일경제 2011년 9월 27일〉

쌀눈 크기 4배 키워 효소 만들어

거대배아현미 개발한 고희종 교수

고희종 교수가 서울대 농업생명과학 대학 내 연구실에서 거대배아현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제 쌀은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 먹는 것에서 건강 기능을 위해 먹는 것으로 변하고 있어요. 즉 많이 먹기보다는 건강하게 적게 먹는 분위기로 바뀐 거죠. 거대배아현미를 개발한 취지도 이 때문입니다."고 교수가 10년 연구를 거쳐 개발한 거대배아현미는 보통 쌀에 비해 쌀눈(배아)이 4.3배 크다는 점이 특징이다.

"쌀눈이 크다는 것은 그 속에 함유된 필수아미노산 일종인 가바(GABA) 함량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현미를 선택한 이유 역시 가바 함량이 높은 쌀눈을 먹자는 취지 때문이라고 고 교수는 설명한다. 그는 "현미는 쌀눈, 미강(껍질), 백미로 구성돼 있는데 쌀눈에 영양성분이 66%, 껍질에 29%가 들어 있는 반면 우리가 보통 먹는 백미는 5%에 불과하다"며 "현미가 몸에 좋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쌀눈을 4배 이상 크게 만들었으니 당연히 더 좋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설명한다. 그래서 고 교수는 거대배아현미를 개발하기 위한 10년 연구기간을 힘들었던 시절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는 "육종(품종을 만드는 것) 과정은 당연히 시간이 걸린다. 사람에게 유용한 유전자를 고르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병충해에 강한 최종 품종으로 만들기까지 오랜 기다림은 당연하다"고 말한다. "농민들이 쌀을 복합건강식품 개념으로 인식하고 고급화 전략으로 나간다면 가격이 아무리 비싸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 향후 배아를 더 크게 하든지, 성분을 변화시키든지 기능성 쌀을 꾸준히 개발해야 쌀 시장 개방에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경기도 안성에서 재배해왔고 최근 친환경농업대상을 3년간 수상한 전남 장흥에서 100t을 추가적으로 생산하게 됐다.

채종원 기자

〈경향신문 2011년 10월 30일〉

"이제 한국이 지구촌 사막화 방지 주도해야"

이돈구 산림청장은 "최근 1년 사이에 나이테가 몇 개나 더 늘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 교수에서 산림청장으로 '변신'한 그는 10월 10일부터 21일까지 경남 창원에서 열린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총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이 청장은 "이번 총회 개최를 계기로 우리나라가 사막화 방지와 관련된 국제적 논의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밝혔다. 선진국들이 주도하고 있는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등과 달리 특정 주도국이 없는 유엔사막화방지협약에서 주도권을 잡아 글로벌 리더십을 키울 수 있는 터전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번 총회에서 사막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창원 이니셔티브(initiative, 제안)'를 채택해 한국이 사막화 방지 분야의 실질적 리더로 올라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 있는 2년 동안 협약의 위상 제고와 국제사회의 실질적 이행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나라 등 12개국의 90여개 기업이 사막화 방지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며 기업들이 사막화 방지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UNCCD 의장국인 우리나라가 글로벌 그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외교를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희일 기자

〈문화일보 2011년 11월 2일〉

[기고] 한·미FTA '以後(이후)'를 두려워할 이유없다

농업경제학 이태호 교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10월 국회 처리는 야당의 합의 번복과 물리적 저지로 끝내 무산됐다. 민주당은 한·미FTA의 후유증만 집중 부각하며 반대 공세를 이어가고 있어 향후 전망도 불투명하다. 시장 개방은 한국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상품을 수출하고 필요로 하는 식량과 자원 수입을 쉽게 하여 한국경제의 성장·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일단 시장이 개방되면 손해를 보는 산업과 이익을 보는 산업이 필연적으로 생겨나게 된다. 시장 개방은 이들 산업 간의 이익 상충으로 인한 복잡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가능한 것이므로 그 자체가 성숙한 사회로 가는 길에 겪는 통과의례적 성격을 띤다.

이번 한·미 FTA에서 여야 정치인들이 보여주는 행태는 성숙한 사회와는 거리가 멀다. 과거에 반대하던 사람들이 찬성하고, 또 과거에 협상을 시작했던 사람들이 비준을 반대하고 있으니 이는 정치가 갈등을 해결하고 조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조장하고 증폭시키는 격이다. 국제협상마저 시민운동에 내주는 사태가 올지도 모르겠다. 한·미FTA는 미국에 비해 국제경쟁력이 낮은 산업, 특히 농업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한다. 한국의 농업에 있어 한·미FTA는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연명하는 산업이 될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이익을 창출하고 확대 재생산하는 산업이 될 것인지를 가름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농업이 개방의 충격 속에서도 유지될 수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농업·농촌·농민이 스스로 새로운 여건에 적응해 나가는 노력이 있어야 시장 개방에 따른 갈등을 극복할 수 있다.

그러나 시장 개방은 협상보다는 적응력과 신뢰의 싸움이다. 협상으로 유리한 조건을 얻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FTA의 결과 어떤 나라의 어떤 산업이 이익을 얻을 것인가 하는 것은 각각의 나라와 산업의 적응력과 신뢰도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시장 개방으로 인해 넓어진 시장에서 외국 제품과 국산품 생산자들은 서로 새로운 상품에 대항하기 위해 어떻게 생산 기술을 선택하고 생산 품목을 조정할 것인지, 어떻게 상품을 개발하고 유통 방법을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일단 결단을 내린 다음에는 신속하게 자신을 새로운 환경에 맞도록 적응시켜야 한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과 1990년대 초반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의 격심한 구조조정 과정을 통해 한국의 농업과 정부는 이미 상당한 적응능력을 보여줬다. 장기적으로는 적응력 있는 한국 농업이 시장 개방에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리고 국산 농산물이 시장 개방으로 인해 쏟아져 들어오는 외국 농산물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뢰가 필요하다. 농산물은 겉으로 보아 그 품질을 판단하기 어렵고, 심지어 먹어 봐도 그 진실한 가치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믿고 소비해야 하는 상품, 즉 신뢰재(credence goods)다.

한·미FTA 협상 과정에서 국내 농업과 농업인은 이미 상당한 자제심을 발휘해 많은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이제는 지나친 주장과 극단적 시위를 그만두고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것이 농업을 위하는 길이다. 과격한 주장을 하는 농업인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먹는 것은 내키지 않는 일이고, 극단적인 시위를 하는 농업인이 버티고 있는 농촌에 관광을 갈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인들도 농업은 협상으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농업인 스스로의 적응력과 국민의 신뢰로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People 농생대 사람들

[동문동정]

▶**김인 동문**(임학 70) 부산대 교수는 한국연구재단이 선정한 "2011년 우수연구성과자"로서 9월 22일 교육과학기술부로 부터 인증패를 받았다

▶**농생명공학연구원의 책임연구원인 조종수박사**와 WCU 교수인 Shimada교수는 10월 21일에 서울 양재테니스클럽에서 거행된 제 31회 전국과학기술인 테니스대회의 노년부 복식경기에서 3위를 차지하였다.

▶**정완대 동문**(조경학 75)이 10월 25일 건설공제조합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양호승 동문**(축산 65)이 11월 2일 한국월드비전 8대회장으로 취임했다.

▶**박호용 동문**(잠사 76)이 11월 2일 한국곤충학회 회장으로 임용됐다.

[교수동정]

▶**이인복 교수**(조경 지역시스템공학부)는 2011년 9월부터 3년간 EU 4개국, 미국 등 5개국의 연구자들과 국제공동연구를 시작하였다. 연구주제는 "Smart Controlled Environment Agricultural Systems"이며, 지난 8월에 유럽 EU-FP 국제공동연구로 최종 선정되었다. 이번 국제공동연구에서는 연구만이 아니라 정보, 인적 교류 등을 통하여 시설환경 및 에너지 절감에 혁신 기술을 함께 연구하게 된다.

▶ **윤여창 교수**(산림과학부)는 11월 3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와 산림 탄소 배출권"이란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전략과 함께 산림 탄소 배출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해외 산림탄소 배출권 동향을 살펴보면서 강원도에서의 산림 탄소배출권 시범사업을 위한 여건을 함께 논의했다.

▶**서진호 교수**(농생명공학부)는 인천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11 아시아경제공동체포럼에서 "우리나라의 바이오화학산업"에 대하여 초청강연을 하였다. 또한 10월 27일 국민대학교 발효융합 국제심포지움에서 "미생물공화기술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소재 생산"을 주제로 초청강연을 하였다.

▶**최진용 교수**(조경 · 지역시스템공학부)는 2011년 11월 14일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물포럼이 주최하는 "제2회 수자원 국민 대토론회"에 참가하여 기후변화의 농업환경요인 영향을 고려한 미래 농어촌용수 수요평가에 관한 주제로 발표하며 미래 수자원의 발전적 활용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였다.

[동창회 소식]

▶**동창회 가을 등산행사, 관악산 산행**

농생대 동창회(동창회장 임학56, 정윤환)는 11월 5일 동문과 동문가족 44명이 관악수목원으로 산행을 다녀왔다. 맑은 하늘아래 붉게 물든 나무를 감상하며 관악수목원을 올라 대잔디원에서 단체사진 촬영을 하였다. 하산 후 점심식사를 하며 모두의 건강을 위해 건배를 제의하였다. 그리고 항상 동창회 행사에 막걸리를 도맡아 제공해 주었던 조재구(임학 83)동문이 이번에도 좁쌀막걸리를 가져와 한마음 잔치를 가졌다.

▶**2012년 농생대 동창회 신년 교례회**

2012년 1월 10일(화), 오후4시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무궁화 홀에서 농생대 동창회 신년교례회가 개최됩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교육연구재단 소식]

많은 분들이 발전기금을 출연 하였다.
(주)한백과학 경기지사장 **이철영 대표**는 10월 13일, 서울대 발전기금 장학금으로 5억 원을 출연 하였다.

차상석(한일사료 부회장) 10,000,000
신경수(농공84) 10,000,000
이승구(식물생산과학부 교수) 10,000,000
이형주(농생명공학부 교수) 10,000,000
김현중(산림과학부 교수) 10,000,000
윤혜정(산림과학부 교수) 10,000,000
농생대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 소식지를 통해 알리고 싶은 소식이 있거나 구독을 원하시면 농생대 기획실 [대외협력 · 홍보팀] (T. 880-4510, calsweb@snu.ac.kr)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151-921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599
홈페이지 http://cals.snu.ac.kr
※지역번호 (02)
학장실 T.880-4501~2 F.873-7709
교무행정실 T.880-4505~7 F.873-2009
학생행정실 T.880-4531 F.873-5597
연구행정실 T.880-4910 F.873-7729
기획실 T.880-4510/4537 F.873-5579
서무행정실 T.880-4512~5 F.873-0263
입학진로정보실 T.880-4667 F.880-4668

식물생산과학부 T.880-4540 F.873-2056
- 작물생명과학전공 T.880-4550 F.873-2056
- 원예과학전공 T.880-4578 F.873-2056
- 산업인력개발학전공 T.880-4830 F.873-2042

산림과학부 T.880-4750 F.873-3560
- 산림환경학전공 T.880-4777 F.873-3560
- 환경재료과학전공 T.880-4780 F.873-2318

농생명공학부 T.880-4901
+ 식품 · 동물생명공학부 T.880-4869
- 식품생명공학전공 T.880-4850 F.873-5095
- 동물생명공학전공 T.880-4800 F.873-2271
+ 응용생물화학부 T.880-4640
- 응용생명화학전공 T.880-4650 F.873-3112
- 식물미생물학전공 T.880-4690 F.873-2317
- 곤충학전공 T.880-4700 F.873-2319
+ 바이오모듈레이션전공 T.880-4907 F.873-2039

조경 · 지역시스템공학부 T.880-4670
- 조경학전공 T.880-4870 F.873-5113
- 지역시스템공학전공 T.880-4580 F.873-2087

바이오시스템 · 소재학부 T.880-4590
- 바이오시스템공학 T.880-4600 F.873-2049
- 바이오소재공학 T.880-4620 F.873-2285

농경제사회학부 T.880-4710
- 농경제학전공 T.880-4711 F.873-3565
- 지역정보전공 T.880-4740 F.873-5080

농산업교육과 T.880-4830 F.873-2042

협동과정 농업생물공학 T.880-4901 F.873-2039

농장 T.(031)293-0310~2 F.(031)295-4216
학술림 T.880-4526 F.873-2031
실험목장 T.(031)293-0313 F.(031)293-0314
수목원 T.(031)473-0071 F.(031)473-0072
농학도서관 T.880-4773~4 F.884-0182
농업생명과학연구원 T.880-4910~4 F.873-7729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 T.880-4845 F.880-4847
국가농림기상센터 T.880-4986 F.871-1361
농업생물신소재연구소 T.880-4920 F.873-5260
식물유전체육종연구소 T.880-4930 F.873-5410
곰팡이병원성연구센터 T.880-4950 F.873-4950
식품 안전성 및 독성 연구센터 T.880-4919 F.883-4919
채소육종연구센터 T.880-4945 F.873-5410
농생명공학사업단 T.880-4901 F.873-2039
작물유전체기능연구사업단 T.880-4942 F.873-5426
농업생명과학정보원 T.880-4523 F.880-4528
교육연수원 T.880-4844 F.872-8995
최고농업정책과정 T.880-4898 F.886-4898
농생명과학 창업지원센터 T.(031)294-0324 F.(031)294-8527
식물병원 T.880-4697 F.880-4698
농업공작실 T.880-4619
식품공장 T.880-4824